

제 110호 무제

최근에 제가 "교수들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여러 일간지에 소개되고 난 후로부터 교수법을 강연하는데 부담을 무척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강사다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쉬운데, 저는 혀가 짧아서인지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청산유수 달변의 명강사라는 이미지와 거리가 멉니다.

교수법을 강연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학하고는 거리가 한참 먼 공학을 전공한 자가 교육과 교수법에 대해서 강연한다고 하니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교수법 강연을 하다보면 자꾸 제 자신을 의식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무엇을 잘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메시지를 너무 강하게 전해서 마치 전도사같이, 또는 약장사같이 보이지는 않을까?", "청중이 잘난 척하는 내 모습에 꼴사나워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의식하게 되니 강의가 자꾸 어색하게 되더군요. 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당연히 관중에게 비친 저는 부자연스럽게 보였을 것이고, 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저를 보는 사람마저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새시대 교수법>에 말씀드렸듯이, 교수님의 말투와 몸 동작 하나 하나가 학생들의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사는 늘 강의에 임하는 자신을 쳐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의식해야 한다"는 말의 참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의식해야 한다는 말은 타인에게 비친 사람으로서의 자신이 아니고, 강의내용을 전달하는 "도구"으로써 청중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의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수님께서서는 강의를 하는 동안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은 잊어야 합니다. 자신은 그냥 칠판과 같이 강의에 필요한 도구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강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토론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자신의 말투와 몸동작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 목표는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일 테지요.

자신을 완전히 잊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도구로서의 자신을 모두 받치는 교수님은 학생들로부터 존경과 따름을 받으실 것입니다. 결국 육체적 자신을 버림으로 인하여 정신적 자신을 얻게되는 것이지요.

결국 달을 가리키는 자신의 손가락을 잊음으로써 학생들이 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강의입니다.